

# 분노·아픔·안타까움... 굴곡의 역사 속 '민주의 봄' 되새기다

12월 12일에 '서울의 봄' 관람해보니

개봉 20일 만에 700만명 돌파  
쿠데타 비극 9일간의 이야기  
17일 광주서 감독·배우 무대인사

역사의 흐름이란 때로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다.

1979년 12월 12일의 대한민국이 꼭 그랬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혼란스러웠던 정국, 이제야말로 민주주의 꽃이 이 땅에 만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했었다. 아마도 1968년 체코 군부의 압제와 파시즘에 염증을 느껴 일어난 '프라하의 봄'을 묵도하며 상상해본 봄이었을 것 같다. 그러나 선부른 희망은 신군부의 군홧발에 산산조각이 났다.

역사의 비극을 담아낸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20일 만에 누적 관람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우리의 기대치를 한참 이탈해 버린 역사에 대한 공분(公憤) 때문인 것 같다. 12·12는 바퀴 쓸 수 없는 현대사의 아픈 질곡이지 않는 하나회, 국방장관(김의성 분)의 비검함 등을 사유는 물론 역사를 성찰하게 만든다.

기자 또한 44년 전 12·12 쿠데타가 발발했던 12월 12일에 맞춰 지난 12일 수원지구 모 멀티플렉스에서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작품은 12·12사태의 배경부터 전개, 이와 얽혀 있는 하나회, 국방장관(김의성 분)의 비검함 등을 초점화하면서 쿠데타의 비극을 시간 순대로 보여준다. 단 9시간의 이야기 속에서 '전두광'(황정민 분)은 군부 세력을 재편하고 군내 사조적인 하나회를 등에 업은 채, 최규하 전 대통령 등을 압박하며 실권을 장악해간다.

한정사상 민주주의가 능력명만, 참혹하면서도 엄동 혹한의 시기를 '봄'으로 은유할 순 없었다. 반어적 의미를 담은 '서울의 봄'은 그 자체로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신군부 세력을 향한 분노, 굴종의 역사 등을 환기하며 시종일관 무게감 기세를 짓누른다.

정해진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 서사는 영화의 역설적인 매력으로 다가온다. 전두광의 반란과 서울을 향한 진군, 폭압적인 군부의 권모술수가 펼쳐지지만 관객들은 그저 '관람'할 뿐이라는 사실은



전두광과 하나회 멤버들이 모여 '쿠데타'를 모의하는 장면.

무력감을 넘어 분노로 다가온다. 이 같은 연유에서 관객들 사이에서는 영화를 관람하다 상승한 맥박 수치를 SNS에 공유하는 '심박수 켈린지' 등이 인기몰이 중이다.

작중 실존 인물 장태완 장군이 현신한 이태신(정우성 분)은 '군인은 정치로부터 멀어야 한다'는 소신을 지닌 강직한 인물이다. 그를 비롯한 작품 속 의인들과 정치군인 하나회의 대립구도는 영화를 보는 내내 팽팽한 긴장관계를 더했다. 실제 장태완 장군의 성격이 다형질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영화 속 정우성은 차분했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모습은 영화와 현실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모미를 선사했다.

상영 내내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또 어떤 관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영화 속 장면들은 44년 전의 시간을 빠르게 역류해 들어갔고, 관객들은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신군부의 불의에 대해 '영화적 복수'는 이뤄진 것 같다. 작중 전두환이 '전두광'으로 명명되지만 여기에 대해 광주 시민들은 "왜 전두환이를 전두광이로 지칭했느냐"고 반문하지 않는다. 전두환의 이름을 극화해 그저 '단 한 글자'를 바꿔 정치적 욕망에만 불붙인 광인(狂人) 같은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기에 전두 '광'이 적절해 보였다.

이날 영화를 관람한 최섭(53) 씨도 "전두 환이

아니라 전두 '광'이라는 점에서 어딘가 통쾌하다"며 "12·12사태나 5·18을 모티브로 영화가 많이 창작돼 광주정신과 민주주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엔딩 크레딧이 내리고 군가 '전선을 간다'가 침울한 버전으로 흘러 나왔다. 원래는 군인정신을 표상하는 의미가 담긴 군가인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군부의 왜곡된 군인정신을 질타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다. 영화가 의도한 것이라면 대성공인 셈. 12·12쿠데타는 이듬해 광주 5·18을 촉발한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북구에 거주하는 박수현(여·26) 씨도 "영화를 보니 분노, 아픔, 안타까움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여운으로 남아 한번 더 관람하고 싶다"며 "700만 관람객 돌파를 넘어 1000만 그 이상의 신화를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봄'은 오는 17일 메가박스 전대, 롯데시네마 광주, CGV 각 지점, 메가박스 하남 등지에서 주말 무대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안세호 배우가 출연한다.

만드시 극작가를 찾아 객석에서 봐야 하는 영화가 있다. '서울의 봄'은 관객들의 한숨과 분노, 울먹임 등이 뒤섞이면서 '공분'으로 필름메이킹을 완성하는 수작이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한국화대전' 윤순금 작가 '심산유곡' 최우수상 전통미술 부문엔 이화영 작가 '얼씨구, 지화자 좋다!'

제 35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에서 한국화 부문 윤순금(광주) 작가의 '심산유곡', 전통미술 부문엔 이화영(광주) 작가의 '얼씨구, 지화자 좋다!'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미술협회(회장 박광구)가 주관한 이번 대한민국한국화대전에는 모두 170점이 출품돼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특선 33점, 입선 62점 등 모두 99점이 상을 받았다.

주최 측은 이번 한국화대전은 창작 의욕과 개성 넘치는 안목으로 다양한 표현언어로 표현된 작품이 많이 출품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쉽게도 대상은 선정하지 못했다.

백현호 심사위원장은 "출품 작품 한 점, 한 점마다 추구하고 살아온 삶의 흔적과 아름다운 사유의 정신이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리라 믿는다"며 "출품 작가 여러분의 창작 의욕과 고취는 물론 문화예술 발전과 대중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순금 작 '심산유곡'

우수상은 한국화 부문 박해자(광주)의 '일상의 탈출을 꿈꾸며', 전통미술 부문 신인순(광주)의 '꿈단지'가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열리며 입상작 전시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예총 백련·지호 갤러리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내 노래의 흔적들을 꼬집어 내다"

기자출신 늦깎이 시인 마정임 '푸른 사월의 비' 펴내

희수(喜壽)를 앞둔 전직 기자가 늦깎이 시인으로 등단해 시집을 출간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사에서 문화부 기자로 활동했던 마정임 시인.

지난 7월 계간문에 신인상을 등단하며 시인의 '명패'를 쥐게 된 마 시인이 최근 '푸른 사월의 비' (계간문예)를 펴냈다.

마 시인은 "지난 세월 삶의 갈피마다 문득 문득 시어들이 내게 다가와 일기장, 습작노트에 숨겨 놓았다"며 "어쩌면 문혀버리고 말았을 내 노래의 흔적들을 꼬집어낼 수 있는 용기를 준 H스승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문화부 기자에서 시인으로 등단하기까지 5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반백년이라는 시간이 가듯없이 흘러간 사이,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도 깊어졌을 것이다. 이와 맞물려 인간과 자연을 향한 애정의 시선도 달라졌을 것 같다.

"앞세 무성할 때/ 미처 보지 못한/ 발 아래 단풍을 본다// 최후탄 연기에 질리고/ 지성과 야성을 탐하며/ 젊음을 저당 잡혔던/ 시간도 지나고/ 사철 피고 지는/ 계절의 문 여단은 소리// 점점 짙어지는/ 단풍의 본색을/ 이제 알아차렸지만/ 마음은 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위 시 '단풍 화장'은 지나온 삶을 단풍에 비



유한 작품이다. 만추의 들녘에서 바라보는 단풍은 "지성과 야성을 탐하며 젊음을 저당 잡혔던" 지난날의 시간을 담고 있다. 우리네 삶의 이면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인은 간결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시어로 노래한다.

홍금자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은 "마정임 시인은 크지 않은 음성으로 섬뚱한 한 줄기의 맑은 물처럼 자신이 갖는 내면의 세계를 사랑하는 이의 귀전에 속삭이듯 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넓은 시의 세계를 펼쳐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 시인은 마들여성학교 문해교육 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 전문상담사 및 구술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제13회 전국꽃백일장 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카메라타전남, 따뜻한 송년음악회 21일 전남대 민주마루

깊어 가는 겨울,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송년음악회와 함께.

(사)카메라타전남이 제11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를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연다.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작품들로 레퍼토리를 구성, 따뜻한 연말 공연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 '박쥐 서곡'이 막을 연다.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제1악장', 드보르작의 '교향악적 변주곡'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낭만과 승고로 대변되는 곡 '저녁별의 노래'는 오페라 탄호이저 3막 삽입곡으로 바그너가 작곡했다. 루치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도 들을 수 있다.

한예중 영재 출신으로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라이프치히 음악원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이 협연한다. 대전시향 악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대 교수.



카메라타전남 정기연주회 장면.

<광주일보DB>

바리톤 김기훈도 출연한다. 연세대 및 독일 하노버음대에서 석사,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고 BBC에서 방송한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경력이 있다.

지휘는 서울대, 비엔나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최혁재가 맡는다. 그동안 서울시립오페라단, 원주

시향, 강남심포니 등을 지휘. 카메라타전남 관계자는 "다양한 오페라에 삽입된 곡들을 감상하면서 연말 분위기를 느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예매.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